



高大圖書館의

두가지 分類表에 關하여



張 一 世

圖書整理의 核心이 되는 것은 分類 및 目錄이다. 學問의 分類는 研究上 概念을 明確히 하는 方法으로서 使用되고 秩序 있는 概念의 配置와 그의 特性을 記述함으로써 理論의 一貫을 期하는데 있다. 圖書分類의 目的是 利用者로 하여금 速히 必要한 資料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또한 關係된 資料를 調查, 研究할 수 있게 하는 同時に 事務의 能率을 높이는데 있다. 먼저 利用者에게 直接 關係되는 圖書分類의 効果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그 圖書館에 어떠한 部門의 圖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어떤 部門, 或은 主題에 關하여 어떠한 圖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a. 特定한 圖書가 없을 때 그 代本을 求할 수 있다.

b. 特定한 主題에 關한 圖書를 必要할 때마다 모아야 할 수고가 없어진다.

c. 特定한 圖書를 求하고는 있으나 그 主題以外, 著者名, 書名의 確實한 記憶이 없을 때도 檢索할 수 있다.

3. 目的으로 하는 主題의 關係主題를 그 前後에서 求할 수 있다.

4. 知識을 體系化하는데 參考로 할 수 있다.

5. 分類記號를 記憶함으로써 한層의 時間과 勞力を 節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分類表는 體系의 이어야 하며, 論理의 이어야 함은勿論 急進의 으로

發達되는 세로운 科學도 充分히 收用할 수 있는 伸縮性 있는 表이여야만 限없이 擴大되어가는 圖書館에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圖書館이 다 그러하였지만 事變以後 極度로 混亂狀態에 빠졌던 本校圖書館의 再整備가 急速히 要請되었고 紛失 또는 各處로 흩어졌던 모든 圖書를 整備함에 있어서 그當時 唯一한 分類表인 朝鮮十進分類表를 使用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K. D. C. (朝鮮十進分類表의 略稱) 가 많은 缺陷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當時(지금도 標準이 될 만한 分類表가 制定된 것은 아니지만) 基準이 될 만한 分類表가 빠로히 없었던 것과, 오로지 未整理로 있었던 數萬圖書를 一定한 分類表에 依하여 整理함으로써 教授와 學生들의 研究資料로서 活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同時に 앞으로의 圖書館發展에 對備하는 準備手段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本圖書館 藏書量이 東洋書 3萬卷, 西洋書 3萬5千卷, 漢籍 3萬5千卷 및 其他로서 10萬卷을 超越 넘고 있으며 特히 繼續 入荷되고 있는 I. C. A. 寄贈 本校商科大學用 圖書는 앞으로 1萬餘卷이 더 들어온 것인바 이 圖書는 本圖書館 藏書에 한 層 더拍車를 加げ 有하는 것이다. 4289年以來 I. C. A. 솟에 依한 7萬5千弗 該當의 西洋書는 氣의 한 購入은 大學圖書館 校圖書館의 內容을 充實하 렇게 大

量의in 新書의 導入은 大學圖書館으로서
의 本格의in 再整備을 促求하게 되었다
특히 事變以後의 西洋文明의 直輸入과 더
부터 各部門 科學圖書의 大量輸入은 지금
까지 東書, 西書에 共通으로 使用되고 있는
K. D. C.로서는 充分한 圖書의 活用
이 不可能할뿐만 아니라 곳에 따라서는
適當한 圖書索出의 결이 거의杜绝되고
말았다.

이제 몇 가지 重要한 K. D. C.의 缺陷
을 말하면

1. 韓國 및 亞細亞諸國을 為主로 作成되
었으되 西洋諸國의 實情을 지나치게 度外
視했다.

2. 따라서 西洋書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美, 英, 獨, 佛, 等 各國 圖書의 分類가 適切
치 못하고 그자체에서 混亂을 惹起하게 된다

3. 特히 藏書量이 많은 自然科學, 文學
語言學, 社會科學等 各部門의 展開가 至極
히 不充分하고, 體系가 서있지 못하여 正確한
圖書의 分類는 勿論 特定한 圖書의
索出이 거의 不可能하다.

4. 東西洋의 學術的體系의 差異를 無視
하고 있다.

以上과같 은 重要한 몇 가지 理由와 同時
에 急速度呈增加하는 西書의 充分한 活用
을 為한 시로운 分類表에 對한 論議가
自然히 일어나게 되었다.

單一分類表를 使用함으로써 東西洋圖書
分類를 單一化할 수 있고, 閱覽者の 便宜書
架의 統一, 統計의 便宜 및 事務의 能率化
등을 圖謀할 수 있는 것을 考慮하여 아래
와 같은 몇 은 構想하였으나 제작
기長短이 不可避한 일이 있다.

第一案
部門의

中 亞細亞關係
부합으로써 東西

洋圖書의 分類를 單一化 하는 案

第二案 “K. D. C.”表中 特히 西洋諸國
關係部門 및 藏書傾向의 많은 곳을 展開함
으로써 東西洋圖書分類를 單一化하는 案

第三案 現存하는 各分類表를 參考로 하
여 東西洋圖書分類를 單一化할 수 있는 새
로운 分類表를 만드는 案

第四案 東書는 K. D. C.로, 西書는 D
D. C. (Dewey 分類表)를 無修正으로 使
用하되 韓國關係 圖書만은 맨 첫머리에
모아 分類하는 案.

以上과 같은 몇 가지 案이었다. 이 몇 가지
案에 對한 具體의in 批判中 重要한 骨
子만을 추려서 쳐기로 한다.

第一案에 對한 批判

1. 많은 修正을 加할 때에 惹起되는 여
러 가지 不利한 點을 (即 a. 分類表 本
來의 體系를 破壞한다. b. 分類表의
理論上의 矛盾을 招來한다. c. 相關
索引의 目的을喪失한다. d. 分類表
의 助記性을喪失한다)을 考慮하여
最少限度의 位置變更乃至 擴大를 아
니할 수 없다.

2. 1과같이 하드래도 韓國의 自主性을
喪失치 얻을 수 없다.

3. 東洋書에 흔히 使用되는 部門의 分
類記號가 길어 짐으로써 事務의 能率
低下는勿論 特定圖書索出에 不便하
다.

第二案에 對한 批判

1. 時代의으로 뒤떨어졌고 不充分한 K
D. C.를 修正하드래도 그 分類表의
時代性을 除去할 수 없다.

2. 藏書量이 現在도 많고 또 앞으로 더
많을 西洋書의 分類記號가複雜化됨
으로써 諸般事務에 支障이 크다.

- 相關索引이 極히 不充分하여 分類事務의 能率이 低下된다.
- 印刷目錄을 利用할수 없다.

第三索에 對한 批判

- 東西洋圖書分類의 單一化를 為하여 이 案이 絶對的이라는 것을 認定한다
- 그러나 本大學校 獨自의인 分類表를 使用하는것 보다는 以上과 같은 여려 가지 苦衷을 다같이 느끼고 있는 他 圖書館의 經驗도 살려서 圖協에서 採擇되는 우리나라 標準分類表를 使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問題에 對하여는 뒤에 再論하겠다)
- 本圖書館 獨自의인 分類表作成에 5, 6個月을豫想了으나 어디까지나 本圖書館의 私案이라는 點

第四案에 對한 批判

單一分類表를 使用할수 없다는 큰 缺陷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 D. D. C.는 西書를 為하여 K. D. C는 東書를 為하여 만들어진 까닭에 오히려 單一分類表를 얹치로 使用하는것보다 矛盾이 적다. 即各己 東西洋 學問體系의 特殊性을 살릴수있다.
- D. D. C.에 依하여 西洋書를 正確히 分類할수 있는 많은 文獻을 利用할수 있다.
- 西洋書에 있어서는 印刷目錄을 利用 할수 있다.

大略以上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近 2個月間의 研究와 檢討끝에 本圖書館에서는 第四案을 採擇하기로 決定하는 同時に 東洋書의 本格의in 再分類는 第三案批判에 쓴것과 같이 우리나라 標準分類表完成을 기다려 決定짓기로 하였다. 지금 까지는 위에 쓴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標

準措置로써 分類및整理를 하였던 까닭에 閲覽用 目錄은 東西洋 圖書를 莫論하고 著者및分類目錄뿐이었으나 이번에 改革을契期로하여 著者分類目錄은勿論 書名및 件名目錄도 세로히 作成하기로 한것은 教授및學生들의 活用度를 한層더 넓히기 為함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번의 改革을 實施하기까지에는 近2個月이란 研究와 討議가 要하였다는것은 위에 쓴바 있지만 特히 本大學校 總長을 비롯하여 各大學長및 圖書館長諸位들께서 貞心으로 本校圖書館의 發展外, 將來의 遠大한 計劃 및에서 热意와 誠意를 다하여 이 問題研究에 積極 參與하였다는것은 우리나라 教育界의一大 前進이라고 아니할수 없는바이다.

이제 나는 이 機會를 利用하여 나아가면 우리 圖協과, 뜻있는 圖書館人들께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圖書館法은 國會에 上程되어 뜻있는 모든 사람들의 關心을 總集中시킨 가운데 그歸趣가 注目되고 있는 이때 우리 圖書館人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結束해야 한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할일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넘어야 할 難關은 너무나 크다.豫算缺乏에 허덕이는 圖協를 살리고 이끌어 나가야 한 일꾼들도 바로 各級 圖書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銘心해야 한것으로 믿고있다.

各 圖書館의 標準이 되어야 할 分類表의 編纂, 目錄法等의 制定은 우리나라 各圖書館에서 鶴首苦待하고 있을것으로 믿고있다. 이미 2年 數個月前 圖協의 分類表作成委員會에서 起草한 分類表草案을 받은바 있건만 이에 對한 아무進展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痛嘆할일이 아닐수없다. 圖書館人가 之를 之는 그 分類表作成에 製意

를 가지고 自己의 있는知識과 時間을 割愛하여 그分類를 研究하고 끝내 完成시킬 만한 人物들이 없었던가? 하고 물고 싶다. 모름지기 圖書館의豫算關係로 中斷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러한 첫事業부터 또 그 일이 第一重大한 만큼 좀더 그일에 대하여 關心을 가지고 많은 論議가 있어

야할 것이다. 圖書館法은 上程되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上記한 問題는 極히 important 問題中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根本問題에 對하여는 機會있었는데로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다시 한번 圖書館人들의 團合을 希求 하면서 이만 끝이니는 바이다. (筆者 高大圖書館 司書)

世豐의 圖書館用品

圖書館의 効率的인 活動은 設備와 用品의 優劣에 左右되는 수가 많습니다. 不合理한 形態로서 實情에 맞지 않는 用品의 採

用은 非能率的일 뿐더러 高價의 浪費를招來하는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弊社는 圖書館의 使命과 用品等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專門的인 研究와 깊은 理解로서 品質優秀한 標準規格의 圖書館 備品, 用品의 專門業으로 誠實과 씨비스를 “吳托”로하고 있습니다.

營業品目

各種斗一三類, 各種圖書帳簿類, 各種書架, 閱覽臺一量, 同椅子類, 司書冊床, 斗一三書架, 雜誌架, 책꼬지, 其他 圖書館 用品 製造 販賣

標準規格의 圖書館用品專門

世 豐 洋 行

서울特別市西大門區巡和洞三八

電話本局②9034番